

정기지표

Kstat Report

2020년 9월 17일

케이스탯 2020년 9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'올바른 방향' 53%로 긍정평가 다시 우세
-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, 모든 연령대 '긍정평가' 소폭 상승

경제 방향성 평가

- 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59%로 여전히 우위

정부 신뢰도

- 정부 신뢰도, 긍정/부정평가 혼동 양상 지속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58%로 소폭 하락

사회통합성 평가

- 우리 사회 '분열됐다' 86%로 부정여론 더 강화돼

개인 행복도

-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60%로 8월보다 악화돼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5%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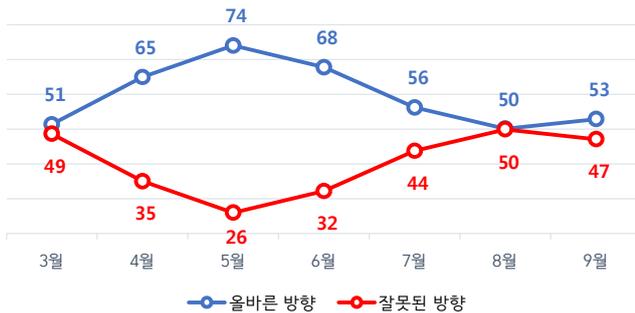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※ '올바른 방향' 53%로 긍정평가 다시 우세

- ▶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'가 53%로, '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'(47%)보다 높게 조사됨
- ▶ 5월 이후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으나, 9월에는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반등함
- ▶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50 세대 △중도층, 진보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, 호남 등임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, PK △자영업자, 블루칼라 종사자, 은퇴.무직 계층 등임
- ▶ 8월에 '잘못된 방향' 이라고 응답했던 계층 중에서 '올바른 방향'으로 이동한 계층은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 △주부, 학생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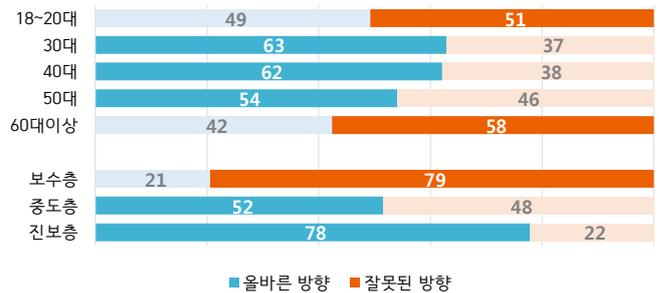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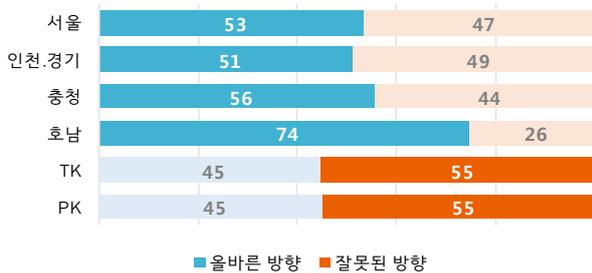
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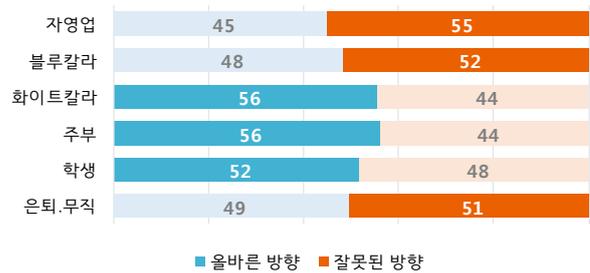
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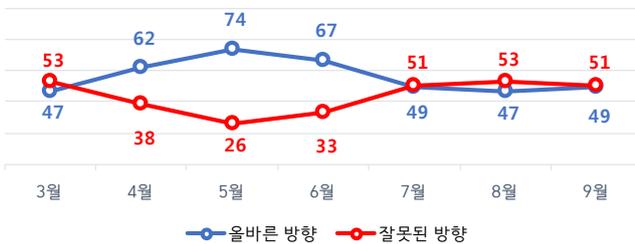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랑제일교회 · 광화문 시위 발 '코로나19 재확산'이고, 이에 따라 긍정평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
 - ▶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, 코로나19가 확산 시에는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해 '긍정평가'가 상승하고 진정국면에서는 '긍정평가'가 하락하는 양상임
 - ▶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는 수면 밑에 있던 정부정책이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됨
- ☑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진입하는 10월에는 '긍정평가'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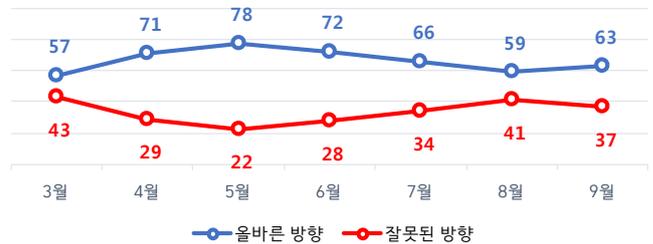
※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, 모든 연령대에서 '긍정평가' 소폭 상승

- ▶ 연령별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를 살펴보면, 모든 연령대에서 '긍정평가'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- ▶ 3050 세대는 언제나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데, 9월에는 '올바른 방향'이 소폭 상승함
 - 특히 50대는 양자간 격차가 8%p에 불과해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됨
- ▶ 18~20대와 60대이상은 7월부터 '잘못된 방향'이 우세한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
 - 9월에도 이들 연령층에서는 증감이 거의 없는 채 '잘못된 방향'이 우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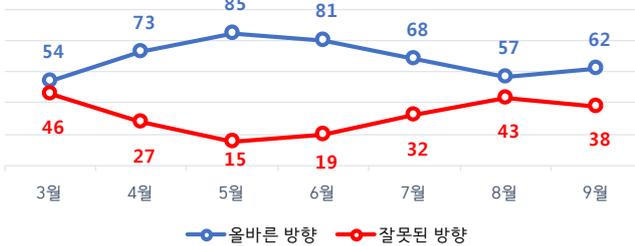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18~20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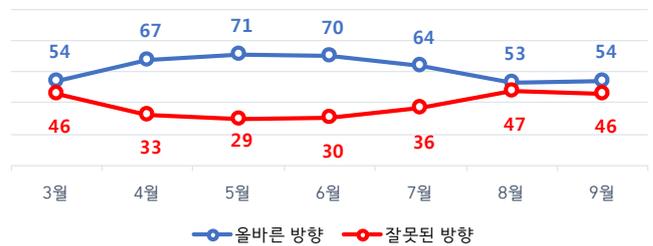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30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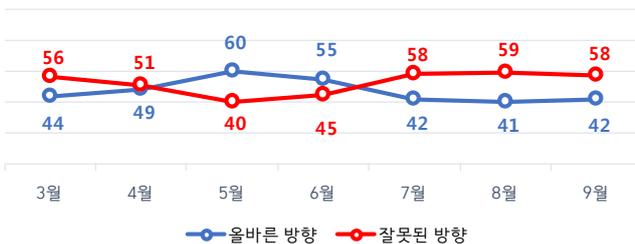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40대

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50대

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60대이상



Kstat Point

- 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'이라는 평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예상보다는 상승폭이 낮았음
 - ▶ 18~2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거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됨
- ☑ 코로나19 재확산이 폭발적인 급증세가 아니라, 다소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·사회이슈가 계속 생명력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
 - ▶ 7월의 부동산 정책 이슈에 이어 8월의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등이 18~2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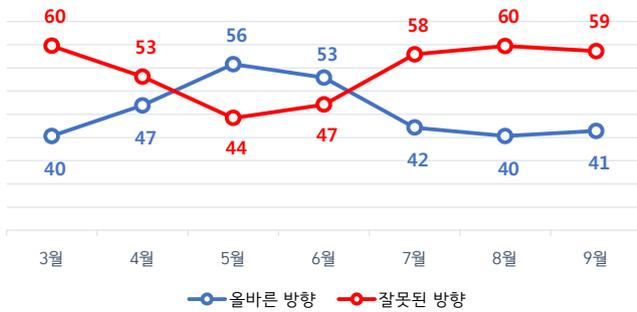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

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59%로 여전히 우위

- ▶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 평가는 '잘못된 방향'이 59%로 '올바른 방향'(41%)보다 우위에 있음
 - 7월부터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위에 있는 흐름이 고착되어 가는 양상임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하고, '올바른 방향'이 우세한 계층은 △진보층 △40대 △호남에 불과함
 -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서 '올바른 방향'이라고 응답한 30대와 50대도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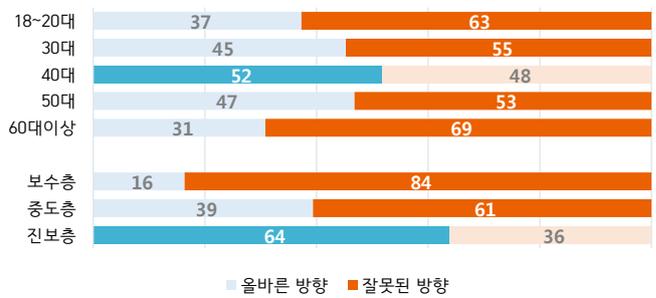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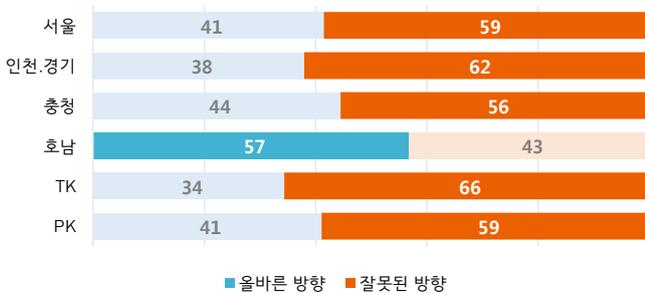
9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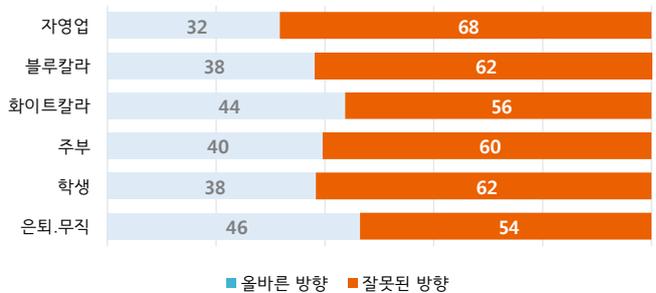
9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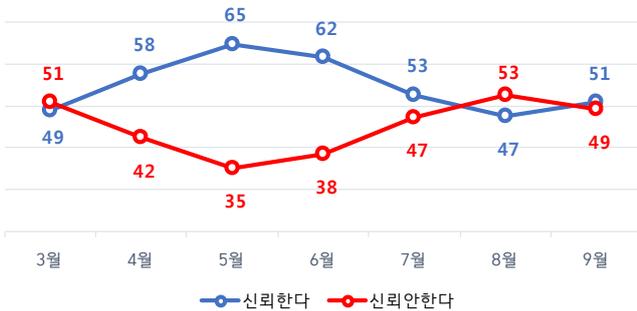
- ☑ 9월 경제 방향성 지표 전망 시 코로나19 재확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
 - : 코로나19 재확산은 그 자체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, 경제 방향성 평가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음
 - :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'한국판 뉴딜 정책'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가 검토되었으나, 이러한 발표가 없음에 따라 변수 없이 부정평가 우위 흐름이 유지됨
- ☑ 10월 경제 방향성 역시 '잘못된 방향' 우위 양상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됨
 - : 정부의 4차 추경안이 집행되더라도 '피해 지원'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제 방향성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: 경제 방향성은 주로 '불확실성 해소'와 '미래 비전 제시' 등으로 낙관적 경제심리가 살아나야만 개선될 것인바, 정부의 '한국판 뉴딜 정책'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

▣ 정부 신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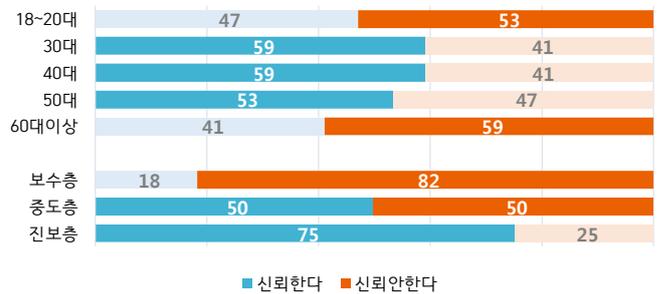
※ 정부 신뢰도, 긍정/부정평가 혼동 양상 지속

- ▶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'신뢰한다' 51% vs '신뢰 안한다' 49%로 근소하게 '신뢰한다'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▶ 정부 신뢰도 평가는 7월부터 긍정/부정평가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엇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
- ▶ '신뢰한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3050 세대 △진보층 △충청, 호남, PK 등임
- ▶ '신뢰 안한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서울, TK △자영업, 블루칼라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8월 지표와 비교해 '신뢰 안한다' 우세에서 '신뢰한다' 우세로 바뀐 계층은 △충청, PK △화이트칼라, 학생 계층 등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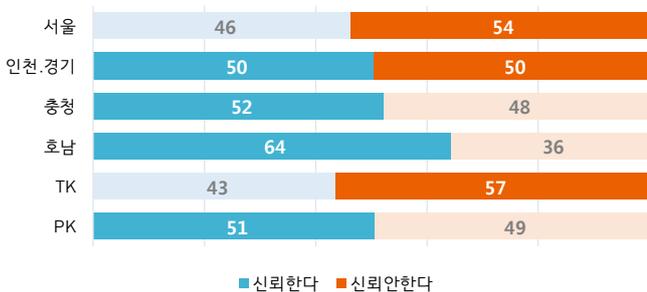
정부 신뢰도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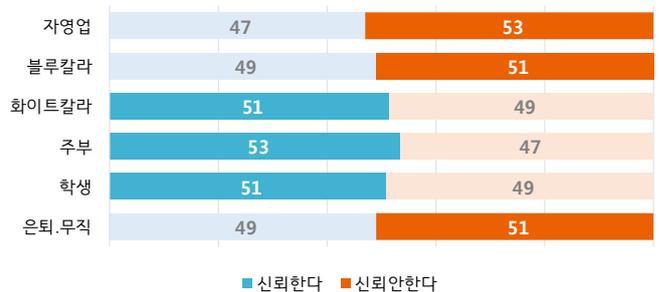
9월 정부 신뢰도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정부 신뢰도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정부 신뢰도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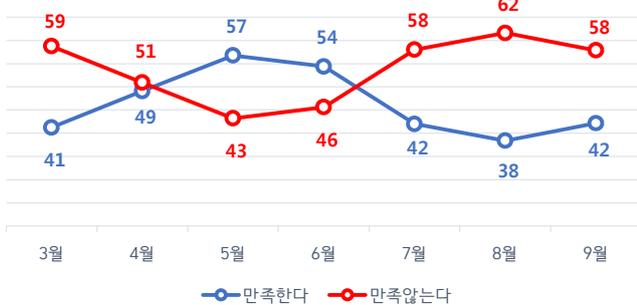
- ☑ 국가·사회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폭발양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, 그렇다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안정된 것도 아니기에 코로나19가 정부 신뢰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
: 코로나19 재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경우 정부 신뢰도는 상승하고, 그렇지 못할 경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음
- ☑ 10월 정부 신뢰도는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한 하락세로 재차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

▣ 정부정책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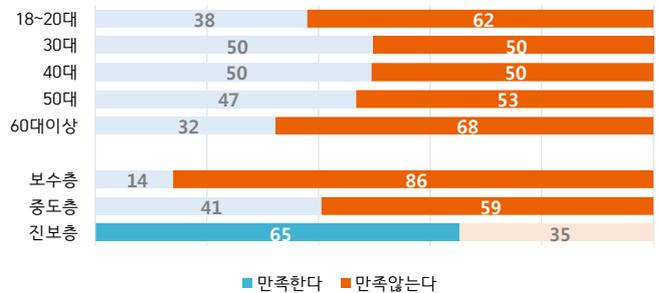
※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58%로 소폭 하락

- ▶ 정부정책 만족도는 8월에 비해 '만족 않는다'는 여론이 62%에서 58%로 소폭 하락함
 - '만족한다'는 의견은 42%를 기록함
- ▶ '만족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8월과 마찬가지로 △진보층 △호남밖에 없음
 - 주목되는 지점은 모든 연령층, 모든 직업군에서 '만족 않는다'는 응답이 우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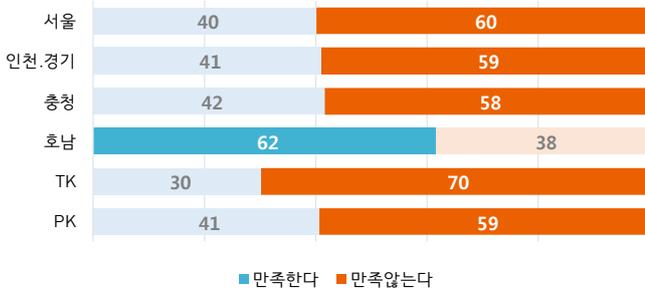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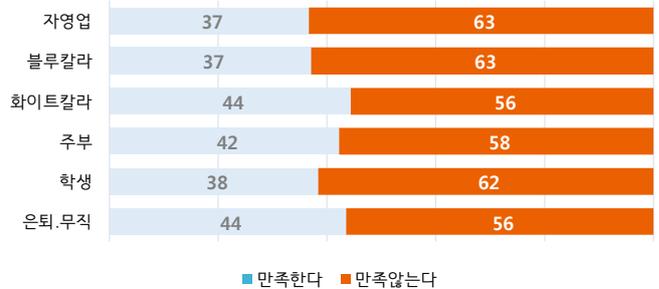
9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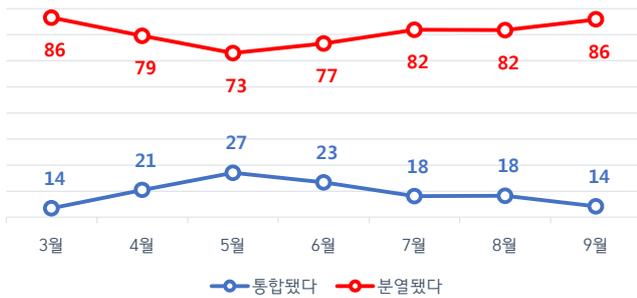
- ☑ 8월에 이어 9월에도 진보층과 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정부정책에 '만족 않는다'는 응답이 높은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 매우 유의해야 할 지점임
- ☑ 정부정책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,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면 더욱 부정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
- ☑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국면에 돌입하는 10월의 정부정책 만족도가 상승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임
 - : 정부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 외에 별다른 정책 드라이브가 없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임

사회통합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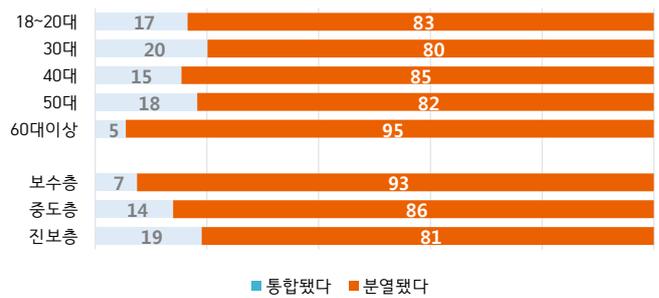
우리 사회 '분열됐다' 86%로 부정여론 더 강화돼

- ▶ 우리 사회 통합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개선되기보다 더 악화됨
- ▶ 9월 조사결과 '분열됐다'는 의견이 86%로 8월보다 소폭 높아짐
 - '통합됐다'는 의견은 14%로 지난 3월 조사 수치와 동일한 최저치를 기록함
- ▶ '분열됐다'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 △자영업자 등임
 - 이들 계층은 거의 언제나 '분열됐다'는 응답이 특히 높음
- ▶ '통합됐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진보층 △인천.경기 △학생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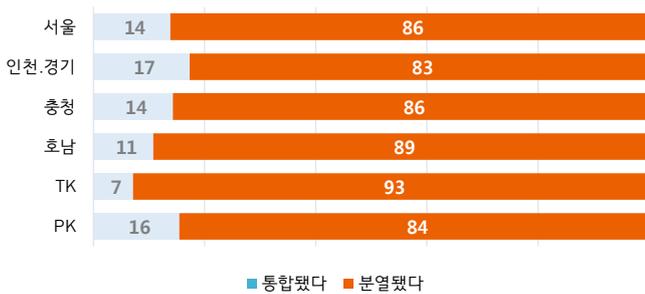
사회통합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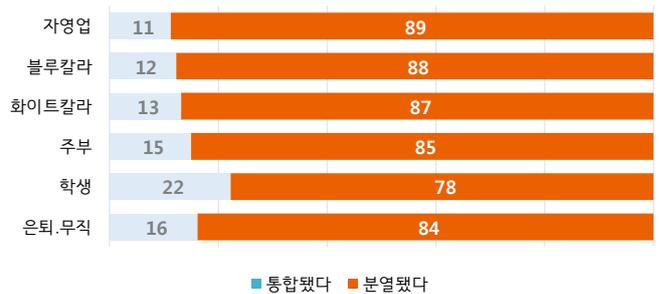
9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우리 사회가 '분열됐다'는 국민 생각은 매우 확고하고, 고착화되어 있음
- ☑ 이러한 분열 의식은 사회의 건강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규칙에 대해 불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☑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'불공정'하고, 불공정 유발 요인 중 '부모의 사회적 지위'와 '정치적 인맥'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
 - : '부모의 사회적 지위'와 '정치적 인맥'의 힘으로 사회규칙을 초월하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권력은 더욱 공고해지게 되고, 결과적으로 사회 분열은 더욱 강화됨
- ☑ '공정'에 대한 자세한 국민 의식은 케이스탯 리포트 12호 ['공정'에 대한 국민 의식 심층 분석]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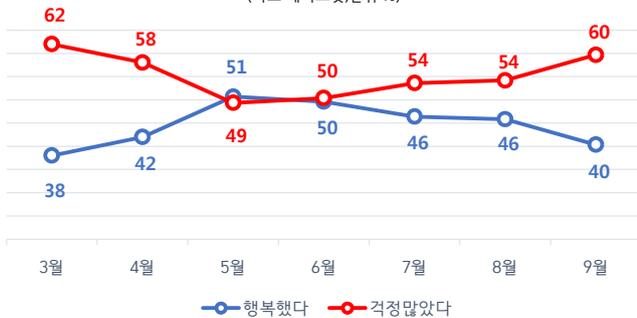
▣ 개인 행복도

※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60%로 8월보다 악화돼

- ▶ 국민 중 어제 하루동안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8월보다 6%p 상승한 60%를 기록함
- 어제 하루 '행복했다'는 의견은 40%로 하락함
- ▶ 학생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'걱정 많았다'는 여론이 우세함
- ▶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 △자영업자, 블루칼라 등임
- ▶ '행복했다'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3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화이트칼라, 주부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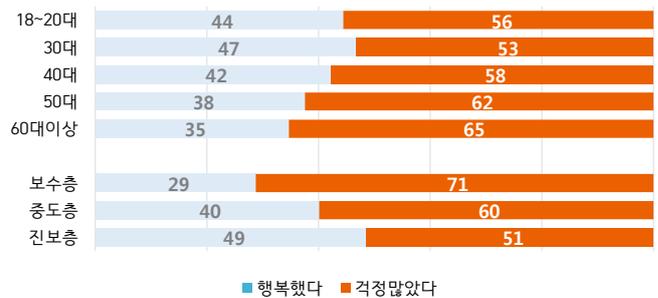
개인행복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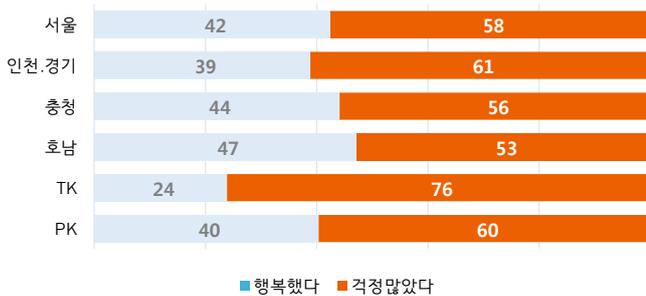
9월 개인행복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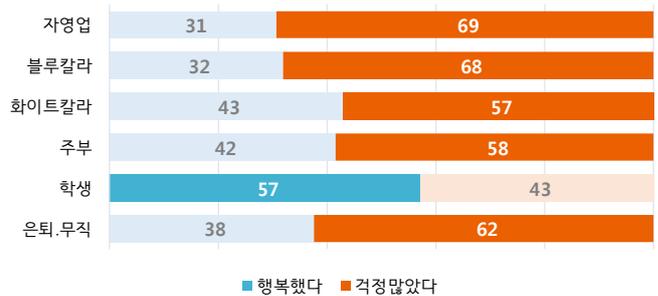
9월 개인행복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개인행복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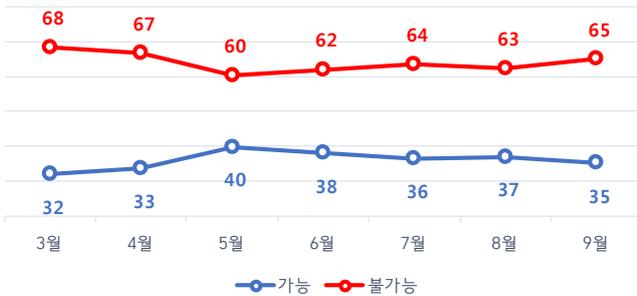
- ☑ 국민 행복도가 악화된 것은 당초 전망된 대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때문임
- ☑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장기화는 향후에도 국민 행복도를 계속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: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'언제' 끝난다는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지만, 지금의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음
- ☑ 이른바 '코로나 우울증'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, 이러한 지점에 대응하는 국가·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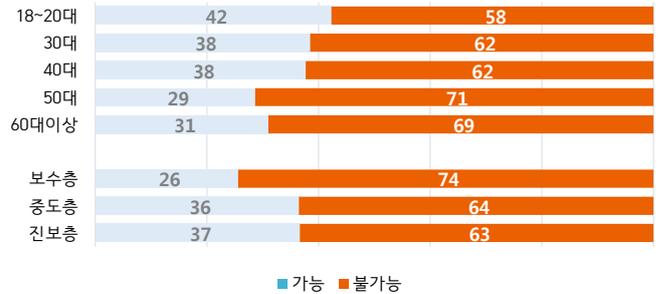
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5%

- ▶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루기 힘들다는 국민 의식이 뚜렷함
- ▶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'가능하다'는 의견은 35%이고,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은 65%로 조사됨
 - 조사를 시작한 3월 이후부터 거의 비슷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음
- ▶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△50대 △보수층 △인천.경기 △블루칼라, 자영업자 등임
- ▶ '가능하다'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18~20대 △충청권 △학생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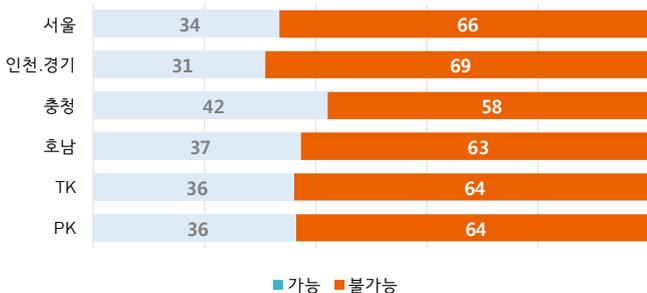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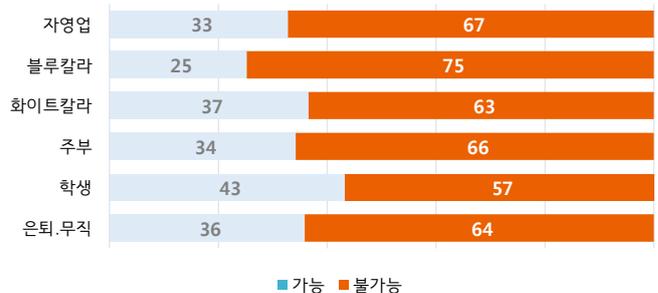
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9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'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,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'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75%가 동의하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'계층상승의 사다리'가 부러져 있음
 - : 케이스탯 리포트 12호 [‘공정’에 대한 국민 의식 심층 분석] 보고서 중
- ☑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'부자는 사회 전체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'(동의 76%)고 생각하고, '빈부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'(동의 63%)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
 - : 위 케이스탯 리포트 12호 수록 내용
- ☑ 계층상승이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적, 정치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9월 4일(금) ~ 9월 6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053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02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13호(2020.09.24.)는

“민주주의와 개인 자유에 대한 국민 의식”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